

특별기획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 공사 재개

군산시, 공정률 85% 마무리 공정만 남겨 놓은 상태 내달 완료 기로

군산시 해방동 일원에 신속중인 군산시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이 공사중지 4개월만에 재개에 나선다. 수협 면세유 공급시설은 해방동 1011-13번지 일원 공유수면에 총 13억 5800만원(국비 85%, 지방비 15%)을 들여 경유와 휘발유를 저장하는 탱크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당초 6월말 완공 예정이던 이번 사업은 인근 주민들이 안전성을 이유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발하고 나서면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태였다. 이에 군산시는 주민과 수협을 상대

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선 결과 인근 30여 세대 주민들을 장기적으로 희망(행복)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가 합의하면서 공사 재개에 나섰다. 수협은 전체 공정률이 85%로 사실상 마무리 공정만을 남겨 놓은 만큼 늦어도 10월 중순경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본격적인 운영은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주민들과의 요구사항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기 전까지 잠정 중단할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그동안 주민들의 민

원으로 공사가 중단됐던 사업을 다시 추진하게 돼 다행"이라며, "일단 사업(행복) 아파트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비상대책위가 합의하면서 공사 재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산시 관계자는 "양 측이 서로 윈윈한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이끌어 내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며, "아직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협측이 완공 이후에도 운영을 중단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놓은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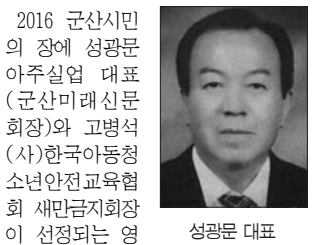


성당초 안전지킴이 어린이 어려운 이웃 나눔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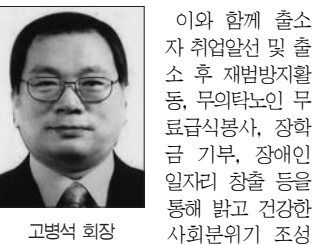
올해 유난히 더웠던 폭염이 지나고 선선한 성당포구 산들바람과 함께 시골의 성당초등학교 안전지킴이 어린이들이 성당면사무소를 찾았다. 한 손에는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뽑은 냉커피를 한 손에는 학교 마당 한 켠 텃밭에서 학생들과 선생님이 정성스레 가꾼 작물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이웃사당 실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달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군산시, 2016 시민의 장 수상자 결정

경제산업근로장에 성공문 대표·문화예술체육장 고병석 회장 선정



성광문 대표



고병석 회장

2016 군산시민의 장에 성공문 이주실업 대표(군산미래신문 회장)와 고병석(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장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군산시는 최근 시민의 장 선정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제산업근로장에 성공문 대표, 문화예술체육장에 고병석 회장을 각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근로장 성공문 대표는 군산의 대표적 향토기업인 이주실업 대표이사로 기술개발에 투자하는 미래형 경영자로 인정받고 있다. 성 대표는 품질경영, 친환경경영 실천으로 수출주도형 기업으로 투자 및 고용확대로 지역경제를 선도하였을 뿐 아니라 각종 봉사활동 등 사회 공헌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등 귀감이 되고 있다.

이와 함께 출조사 취업알선 및 출사 후 재발방지활동, 무의탁노인 무료급식봉사, 장학금 기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밝고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오고

여받았다. 고병석 회장은 교직에 재직하던 시절 체육·과학·예능·문화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했다. 또한 (사)한국아동청소년안전교육협회 새만금지회를 창설, 아동·청소년의 안전문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군산시배구협회 연합회장, 군산시민체육회 이사·부회장을 거치며 체육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다. 시상식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54회 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있을 예정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성공문 대표와 고병석 회장은 평소 지역 사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오고 있다"며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은 공익 봉사활동 분야의 후보자도 모두 훌륭한 분들이지만 공적이 비슷하고 후보자 간의 경쟁이 치열해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군산시민의 장은 1968부터 시상을 시작해 2015년까지 8개 분야 264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군산=문정곤 기자

호원대학교 신·편입생 교비로 특별장학금 지급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는 최근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지에도 불구하고 신·편입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교비로 특별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모든 학생들에게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급된다. 다만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는 국가가 지원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비로 전액 지급한다. 교육부 지원에 의거하면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는 든든한 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되는데, 대출받고자 하는 수험생들은 50%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학 측은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에 대하여 매 학기 말 면학장학금 형태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유환식 입학처장은 "이번 교육부 지원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에게 피해주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학업 동기 부여 차원에서 면학 장학금을 신설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내일 입피 왕산·수선화경로당서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공연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체험공연을 통해 어르신들이 아름다운 추억여행을 떠난다.

내일 입피 왕산경로당과 회현 수선화경로당에서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 공연이 펼쳐진다.

'움직이는 예술 정거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해 산골이나 농·어촌 등 문화소외지역을 찾아다니며 공연 및 미술, 체조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이다.

이번 행사는 마을 어르신 30여명을 초청해 문화예술교육 체험 공간으로 내·외부를 개조한 예술 버스 안에서 연사포를 휘날리며 리는 주제로 예쁜 드레스와 연사포를 쓰고 레드카펫 걷기, 영상 편지, 리마인드 웨딩 등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김봉곤 군산시 문화예술과장은 "상대적으로 문화적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마을에 체험형 버스가 찾아와 어르신들이 추억을 되돌아보며 문화예술을 즐기고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19기 아이돌보미' 모집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이 돌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할 '제19기 신규 아이돌보미' 10명을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부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시간제, 종일제, 종합형, 보육교사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대상은 자녀 양육경험이 있으며 신체 건강하고 정신상태가 양호한 군산 거주자이다.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친 최종 합격자는 기본소양교육과 아동발달단계별 교육 등 양성교육 80시간과 현장실습 10시간을 수료한 후 아이돌보미로 활동하게 된다.

아이돌보미를 희망하는 군산시에 거주하는 활동신청서(사진 첨부), 주민등록등본, 관련자격증 등의 구비서류를 가지고 군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gunsanifc.familynet.or.kr) 군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443-2514, 5300)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곤 기자



(재)익산문화재단은 지난 7월 선임직이사 공개모집을 통하여 8월말 4명의 선임직이사를 선출했다. 선임직이사는 김복현(전 익산문화원장), 김영규(익산예총 회장), 이한호(금강방송(주) 대표), 양은용(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등 4명이 선출됐고 최근 익산시청 시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익산문화재단, 공개모집 선임직이사 선출

(재)익산문화재단은 지난 7월 선임직이사 공개모집을 통하여 8월말 4명의 선임직이사를 선출했다. 선임직이사는 김복현(전 익산문화원장), 김영규(익산예총 회장), 이한호(금강방송(주) 대표), 양은용(원광대학교 명예교수) 등 4명이 선출됐고 최근 익산시청 시장실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임명장 수여식에서 정현을 재

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은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문화와 예술이 존재하지만, 더 높은 수준의 문화와 예술이 있는 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우리 익산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문화와 예술의 수준을 끌어 올리는 데 힘써주시길 바란다."라며 선임이사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사장은 "익산시의 문화와 예술을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도록

문화예술정책개발에 힘써주고 지역 문화 역량강화에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라며 이수근 삼임이사에게 주문했다. 이번 공개모집으로 선출된 선임직이사들은 2016년 9월 1일부터 2018년 8월 31일까지 2년 동안 문화재단에서 문화와 예술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익산=장영원 기자

코레일 전북본부 전주역 정동영 국회의원 초청 1일 명예역장 체험

코레일 전북본부 전주역(역장 김남용)은 지난 13일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을 초청하여 1일 명예역장 행사를 시행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전주역 1일 명예역장으로서 매표, 안내, 운전취급등 역(驛) 업무를 직접 체험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으며, 여객편의시설 안전점검, 고객맞이 인사 등을 시행하고 전주역과 지역의 현안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정동영 의원은 "천만 관광객이 찾는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의 명예역장이

군산시,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나섰다. 군산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관리 및 문화·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사업 신청을 받는다. 여성농업인 생생마우처 지원사업 대상은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35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인 농어촌지역 여성농업인 중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경영기구의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자로 확정되면 10월 바우처 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스포츠용품, 수영장, 종합스포츠센터, 놀이공원, 펜션·민박, 목욕탕, 찜질방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군산=문정곤 기자

군산시-교육발전진흥재단 학부모 특강

군산시와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오는 20일 저녁 7시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미래사회 변화와 미래창조 진로설계'라는 주제로 학부모 특강을 한다. 이날 특강은 현재 UN 미래포럼 한 국대표부 사무총장이며, 세계기후변화상 수상자 한국대표 미래학자 박세훈 교수의 강의로 진행된다. 박세훈 교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 청년 소년들이 세계변화의 큰 파도 트레드에 관심을 갖고 미래예측의 힘을 길러 대비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 진로설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강좌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미래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갈 것인지 메가트렌드를 듣고 나의 미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강에 관심 있는 학부모와 학생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강의 신청은 온라인(www.KCN.TV)과 전화(1544-5400), 방문접수로, 남은 좌석에 한해 현장접수가 가능하다. /군산=문정곤 기자